

| 제 1 장 |

한국전쟁의 발발

한국전쟁의 발발

6·25 전쟁을 잘 모르는 젊은 독자들을 위하여 6·25 전쟁(이하 한국전이라 칭함)의 발생원인과 배경을 약간 설명하려한다.

A. 한국전의 발발 원인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함으로써 35년 동안이나 일본 식민지 통치를 받던 우리 조국 삼천리 강산에 광복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국 한반도는 미소 양대국에 의해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분단됐고, 남과 북은 각각 정치, 경제제도를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질적인 체제로 태어남으로써 한반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 다음에 일어날 한국전(6·25 전쟁)



▲ 한강다리 폭파로 서울을 탈출하지 못한 피난민들이 목선을 구하여 서울을 탈출하고 있다.



▲ 북한군은 1950년 7월말 낙동강 방어선을 제외한 남한 전체의 90%를 점령했다. (1950. 7. 27)

의 씨앗을 심어놓게 되었다.

B. 서전부터 낙동강까지

1950년 6월 25일(일요일) 소련제 탱크 T-34/85형 242대와 74타입 58대, 야크 전투기와 폭격기 등 200대와 각종 야전포의 엄호 아래 231,000 명의 훈련된 정예부대가 동부에는 오전 4시, 중부에는 오전 2시를 기하여 노도와 같이 일제히 38선을 돌파,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다. 남쪽 대한민국의 총 병력 98,000명(이중 65,000여명이 전투병력)은 전날(24일, 토요일)에 대부분의 병사들이 농번기를 맞아 모내기 도움을 위한 휴가를 갔고, 잔여 병력만으로 탱크 한 대 없이 맨주먹으로 불의의 남침에 대항했으나 3일만인 6월 28일 적이 수도 서울까지 침입하고 말았다.

적의 추격을 늦추기 위해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예고 없이 한강다리를 폭파함으로써 서울지구에서 전투 중이던 많은 국군들은 인민군의 포



▲ 피난길을 떠나는 3대 가족들 (1950. 8. 7)



▲ 한국전쟁 중 피난지에서 구두닦이를 하는 소년들 (1950. 8. 7)



▲ 우마차를 이용해 피란에 나선 대열 (1950. 8. 7)

로가 되었다. 당시 서울시민 144만6,000여명 가운데 한강철교 폭파 이전에 서울을 빠져나간 사람은 전체 인구의 약 1/4인 40만명에 불과했고, 이들의 80%가 북쪽에서 탈북해온 월남 동포였다.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은 즉시 한강을 건너 국군을 추격하지 않고 서울에서 6월 30일까지 머물게 되었는데 이것은 동부 춘천 전투에서 국군 6사단(사단장 김종호 대령)의 필사적인 저항 때문이었다. 이 2박3일 동안의 지연(서울 체류)은 그 뒤의 낙동강 전선에서 UN군 증파에 시간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적군은 낙동강선을 돌파할 기회를 놓쳤고, 그 후 UN군의 반격을 허용하게 되어 이것이 나중에 전세를 뒤엎는 시간적 이점을 벌게 하였다.

여기에서 왜 국군이 그토록 쉽게 무너졌는가를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반도가 양대국에 의해 분단되면서 남쪽에도 많은 공산 지지세력이 준동하여 군대(당시는 국방경비대로 불렀음) 내부에도 많은 좌익 세력들이 침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기습에 의해 한국전이 일어났지만 이러한 정보를 전혀 파악



▲ 밥 짓는 아이들 (1953. 3)

못한 이유는 한국군 정보기관 내부에 많은 좌익분자들이 섞여있어 이러한 정보들을 군 수뇌부에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증거 자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당시 국군의 육군참모총장 최병덕 장군의 전속부관이었던 라엄광 중위라는 자는 군적에도 없는 남로당원이었으며(한국전 발발과 동시에 없어졌음)

그가 모든 정보를 가로막아 참모총장이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좋은 예들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6.25 발발 15일전인 6월 10일에 모든 중화기 및 차량 등을 부평 공장으로 수리하도록 후송시켜 6.25때 이것들을 사용할 수 없게 했음.

2) 6월 15일(6.25의 10일전)에 군 지휘관 인사를 단행해 6.25때 지휘계통에 대혼란을 야기시켰음은 물론 같은 날(6월 15일)로 군 부대에 이동 명령을 내렸음.

3) 6.25 하루 전날인 6월 24일에 전 장병에게 휴가령을 내렸음.

4) 6.25 발발 전날인 6월 24일 밤에는 육군회관 개관기념 파티를 열어 고급 장성들이 밤늦도록 댄스와 음주로 지새웠음.

이렇게 하여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효과적인 응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한국군의 패배를 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C. UN군의 참전

북한군이 6월 25일 전 병력을 동원하여 남침하자 한국정부는 주미 한국 대사 장면 박사와 서기관 한표옥씨로 하여금 즉시 미국 무성에 사태의 긴박함을 알렸고, UN에서는 뉴욕 시간으로 6월 25일(한국시간 6월 26일)자로 대한민국(이후 한국으로 또는 ROK로 표기)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후 북한 또는 DPRK으로 표기)에게 UN 총



▲ 미군기의 용단폭격으로 적의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고 있다. (1950. 8. 16)

회결의서 293호(UNG #293)를 발행, 즉시 전투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UN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는 UN안보리 결의서 82호(UNSC Resl. #82)를¹ 발행, 교전 양국(ROK와 DPRK)에게 즉시 전투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요구를 묵살, 남침을 계속하여 6월 27일(한국 시간 28일) 서울까지 침입하자 UN안전보장 이사회(안보리로 줄임)는 북한에 즉시 북위 38선 이북의 원위치로 북한군을 철수시킬 것을 UN 안보리결의서 #83²로 강력히 경고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고, 남침은 계속되었다.

1 별첨부록 A (Appendix A) 참조

2 별첨부록 A (Appendix A) 참조



▲ 전쟁에서 포로가 된 미군병사들이 북으로 끌려가고 있다.

한편 미 행정부는 이 결의안이 가결되는 동시에 즉시 해리 S. 트루먼 대통령(Harry S. Truman 미 33대 대통령)이 미 극동군 총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General Douglas MacArthur)에게 “남한에 대한 해군과 공군의 지원을 즉각 개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 극동 제 7 함대는 대만을 지키기 위하여 즉각 대만해협으로 급파했고, 맥아더는 6월 29일 일본 하네다에서 비행기로 한국의 전 전선을 직접 시찰, 즉시 워싱턴에 지상군의 투입을 요청하였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4일자로 한국군(ROKA)의 지휘권을 맥아더 장군에게 위임한다는 서한을 보냈으며 7월 17일에 그가 이를 수락한다는 회신을 보내옴으로써 한국군의 지휘권이 UN군 총사령관에게로 넘어갔다. 일방 유엔안보리(UNSC)는 부득이 7월 17일 UN회원국들에게 북한의 계속 되는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지원 병력을 요청, UN안보리 결의서 #84³를 통과시킴으로써 유엔군(UNC)이 창설되었다.

이 유엔군(UNC)산하에는 한국군 외에 16개국이 참전했다.⁴ 그리고 곧 이어 안보리 결의서 #85호⁵에 의해 미 극동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이

3 별첨부록 A (Appendix A) 참조

4 별첨 부록 한국전 참전국 일람표 (Appendix B) 참조

5 별첨 부록 A (Appendix A) 참조



▲ 인천 상륙작전 지휘함 맥킬리호 선상에서 작전 지휘하는 맥아더 원수

UNC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로써 6·25 한국전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 대 북한인민군, 나중에는 중국의용군(중공군)과의 대결로 변해 역사가들은 이를 대리전(Proxy War)이라고도 부른다. 역사적으로 태평양 전쟁(제2차 세계대전, 극동전선)에서 우방이었던 미국과 중국이 한국전에서 서로 총 뿌리를 겨누는 적대국으로 변했고, 이를 분기점으로 이후 양 대국이 항상 대치국면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미중관계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물론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됨으로써 미중관계가 대치국면으로 변할 것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D.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 방어전에서 일제 반격

a) 낙동강 방어선:

6월 25일 38선을 돌파한 북한 인민군은 6월 28일에는 서울을 점령, 7월 5일에는 오산, 7월 24일에는 대전을, 7월말에는 목포와 진주를, 8



월 초에는 김천과 포항을 함락시켜 적은 8월초부터 낙동강 방어선에서 UN군과 한국군의 필사적인 저항에 조우, 적은 부산으로 통하는 대구를 돌파하기 위하여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으나 UN군과 한국군은 여기에서 더 물러설 수는 없는 지경에 필사적으로 저항, 대구를 사수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특히 대구의 방어전에서 국군 제1사단 (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다부동(多富洞)에서의 치열

한 공방전에서 반격전으로 전환, 적이 대구를 통한 부산 진입을 불가능하게하여 적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완전히 발이 묶여 전선은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져들어갔다.

b) 인천상륙작전:

낙동강 방위선에서 UN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민군은 완전히 발이 묶였고 양측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상태에서 7월 15일부터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킬 것을 구상, 인천에 지상군을 상륙시켜 적의 허를 찌르는 작전을 미 국방부에 건의하였다. 미 국방부(Pentagon)는 인천의 간만차가 심한 것을 우려, 군산으로 상륙할 것을 중용하였으나 맥아더는 절대로 인천을 고집, 트루먼 대통령의 제가를 받아냈고, 낙동강 전선에서 총 반격전을 시작하는 것과 때를



▲ 전선으로 향하는 맥아더 원수(앞줄)

같이 하여 작전을 개시했다.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7사단으로 이루어진 미 제10군단 및 5,000명에 달하는 한국 해병대가 9월 15일 새벽 바다 밀물 때를 이용해 인천 월미도(月尾島)에

상륙(Code name: Operation Chromite), 다음날 인천을 탈환함으로써 9월 26일 서울에 진입하여 28일, 만 3개월 만에 다시 수도 서울을 되찾았다. 이로써 인민군은 불과 15일만에 13개 사단이 완전히 괴멸되었으며, 참모장 이학구(李學九) 총좌(한국군 대령에 해당)를 위시한 2만3,000여명의 적이 국군이나 UN군의 포로가 되었다.⁶



▲ 이학구 총좌의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의 모습

북한 인민군 패잔병들은 38선 북방까지 후퇴하는 동안 전 병력의 대부분이 괴멸되었으며 낙동강 전선에 발이 묶였던 적은 그 배후의 허를 찔려 일제히 38선 이북으로 패주하였다. 반면 UN군의 병력 손실은 인천 상륙작전에서의 손실까지 포함해 오직 18,000명에 불과하였고 UN군은 9월 29일에는 38

6 북한 인민군 13사단 참모장 이학구 총좌는 결사 항쟁하겠다는 상관인 사단장 홍용진 소장을 사살, 사단을 후퇴시키다가 포로가 되었으며 인민군 포로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었다. 후일 거제도 수용소에서 친공포로의 수괴로 활약, 북송후 하극상 반역죄로 처단되었다. (Memoir of Korean War POW written by R. I. Han(2011), P. 85.)



▲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국군 (1950. 9. 26)

선 근처까지 도달하여 일단 진격을 멈추었다.

이는 UN 안보리 결의서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방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UN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의 남북통일이었기 때문에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에 대한 논란이 심각했다. 북진통일을 항상 부르짖던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이 기회에 북진해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우리가 이와 같은 끔찍한 전

쟁을 치러야만 하니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이번 기회에 꼭 통일을 이뤄야 한다” 면서 강력히 북진통일(北進統一)을 주장하였다.

사실 당시의 모든 상황으로 볼 때 무력통일(武力統一) 외에는 통일의 길이 없다고 보여졌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한국군 참모총장 정일권(丁一權) 소장을 불러 한국 단독만이라도 북진하도록 강력히 지시했고, 정일권 소장은 군 지휘체제 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우선 8군 사령관인 위커 중장과 의논한 끝에 동해안 전선의 한국군으로 하여금 전술적인 상황에서 38선 북쪽 기사문리(基士門里) 부근의 감제고지를 점령하도록 하는데 합의하였다.⁷ 이리하여 동해안 전선의 국군 제1군단 예하 2개 사단(수도사단 및 제3사단)은 10월 1일 38선을 돌파, 양양을 탈환한 후 북진을 계속하였다.

7 비록: 6.25 한국전쟁과 육군종합학교(육군종합학교 전우회 발행) P.203



▲ 평양 시내에 입성하는 국군 (1950. 10. 25)

한편 UN에서는 10월 7일 한국통일안이 가결되었으며⁸ 이에 따라 서부 전선의 미 제1군단은 UN군의 북진한계선(北進限界線)인 정주-영원-함흥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북진을 개시하여 10월 19일 국군 제1사단(사단장 백선엽)이 평양에 입성하였다.

이 무렵 10월 15일 트루먼 대통령과 UN 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이 웨이크도에서 만난 자리에서 맥아더 사령관은 “11월 안으로 적을 격멸시킬 수 있을 것이고, 최소한 크리스마스까지는 이 전쟁이 종결되어 미 제10군단만 한국에 잔류시키고 미8군은 일본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극히 낙관적인 보고를 하였다.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들이 초기에 개입했다면 그 성과는 결정적이었을 것이나 이제는 개입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다만 만주(滿洲)에 중공군 10만명 내지 12만 5천명이 압록강(鴨綠江) 연변에 배치되고 압록강을 도하한 중공군은 고작 5만 내지 6만명 정도가 될 것” 이라고 답변해 중공군의 대량개입은 문제시하지 않았다.⁹

맥아더 사령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UN군의 북진작전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10월

8 비록: 6.25 한국전쟁과 육군종합학교(육군종합학교 전우회 발행) P.203

9 비록: 6.25 한국전쟁과 육군종합학교 P.228



▲ 서울 수복 직후 중앙청 앞에서 미사를 드리는 유엔군 (1950. 9. 28)

17일 미8군이 평양 부근까지 진격하였을 때 10월 2일부의 UN 군 사령부 작전명령 제 2호에 의한 최초의 북진한계선(北進限界線)인 정주-영원-함흥(定州-寧遠-咸興)을 한만국경선(韓滿國境線)에서 48Km-64Km 이남 지점을 연결하는 선천-고인-평양-풍산-성진(宣川-古人-平壤-豐山-城津)을 연결하는 선으로 북상 변경하였고, 10월 24일에는 이 한계선마저 아예 철폐하고 한국군과 UN군의 모든 가용한 전투력을 동원하여 한만국경선으로 진격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국군 제 2군단(제6, 제7 및 제8사단)이 10월 26일에는 박천-태천-운산-온정-희천(博川-泰川-雲山-溫井-熙川) 선까지 진출, 그리고 국군 제 6사단(사단장 金鐘五)의 제7연대의 선두부대가 한만국경선상의 초산(楚山)을 점령하고 꿈의 압록강변에 감격적인 태극기를 꽂았다. 그 역사적인 날이 10월 26일 오후 2시 15분이었다.

그러나 그 하루 전날인 25일 한국군 제 1사단이 운산(雲山) 북쪽에서 최초로 중공군(中共軍) 1명을 생포한데 이어 다음날에는 국군 제2군단 전면에서 숫자 미상의 중공군이 출현하여 치열한 교전을 치름으로써 중공군의 개입이 확실시되었다.

E. 중공군 개입

1950년 8월 20일 중국 주은래(Zhou Enlai) 총리는 UN에게 “한국은



▲ 압록강을 넘어 한국전쟁에서 참전하는 중공군

중국의 인접국으로서 중국의 안전을 위해 한국전에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 하였다.

1950년 10월 1일(이날은 중공이 장개석의 국부군을 축출한 1주년 기념 일이다) 소련 대사가 스탈린으로부터 중공 모택동과 주은래에게 중공군 5개 내지 6개 사단을 한국에 투입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¹¹ 그리고 북한 김일성은 모택동에게 간절한 중공군 파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중공은 12월 2일부터 5일까지의 군사 및 정치 고위급 회담에서 임 표(Lin Biao)에게 한국 파병의 총사령관을 맡기도록 결정했으나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고사했고, 대신 팡덕회(Peng Dehuai)가 한국전 개입의 야전 총사령관을, 주은래가 한국전에 대한 총 책임자를 맡게 되었다.

10월 8일 모택동이 중국인민군의 동북방위군을 중국인민 지원병(PVA)으로 개칭, 한국전에 투입키로 하고 10월 10일 흑해에서 요양 중이던 스탈린을 만나 군사적인 원조를 요청, 군 장비와 포탄의 공급을 약속받았다.¹² 그리하여 10월 25일 한국국경을 넘었다.

10 Stokesbury (1990), P. 83.

11 Barnouin & Yu (2006), P. 144.

12 Halberstam (2007), P. 361.



▲ 인적사항이 적힌 목걸이를 걸고 새옷 지급을 기다리는 북한군 포로들

중공군(PVA)은 어둠에서 어둠(19:00-03:00시)으로 움직이는 야간행군과 각종 위장으로 UN공군의 정찰에 발견되지 않았고, 단둥(丹東)에서 한만국경을 넘어 전방의 전선까지 286마일(460Km)을 19일만에 주파하였으니 그 속도를 미루어볼 때 훈련이 얼마나 잘 돼있었는지 실로 경이롭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악을 넘을 때는 산을 우회하면서 하루 평균 18마일(29Km)을 행군하였다.

여기서 한국전에서 UN군의 승리를 역전시킨 중공군의 개입이 왜 이루어졌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중국 국부군을 축출한 지 1년도 채 못되어 아직 극도의 피폐에서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택동(毛澤東)이 한국전에 개입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였다.

첫째, 북한의 공산세력이 무너져 중국 국경까지 미국의 세력이 미치는 것을 중공으로서는 절대 좌시할 수 없었다.(완충지의 필요성)

둘째, 역사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침 1949년의 마지막 국공전(國共戰)에서 장개석(蔣介石) 국부군을 퇴폐

시켰을 때 발생한 약 150만명의 국부군 포로 처리 문제에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 한국전에 이 포로들을 투입함으로써 군 내부의 불안감을 일소할 수 있고, 우방(소련과 북한)에 대한 의리를 지킬 수도 있고, 또 미국의 세력을 북한에서 구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일석삼조(一石三助)를 꾀한 것이었다.

이 국부군 포로 투입은 나중에 포로교환 때 중공 포로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하려하자 국부군 출신 중공 포로들이 결사반대 함으로써 골치 아픈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결국 (장개석이 있는) “대만도 중국땅이 아니냐”는 UN측의 주장에 굴복하여 대만행이 성사되었다. 이로써 한국전에 투입된 중공군의 많은 병사가 국부군 출신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a) 중공군 제1차 공세

압록강을 넘어온 중공군 제13군 그룹은 10월 19일에 제1차 동계공세를 개시, 10월 25일에 중공군 제40군이 한국군 제2군단의 6사단을, 중공군 39군이 한국군 제1사단을 기습 공격 하였다. 이는 국군과 유엔군이 청천강(淸川江)을 도강한지 이틀만이며 그중 선봉부대인 국군 제 6연대는 국경선 남방 60Km인 회목동(檜木洞)에서 고장(古場)으로 북진을 계속하고 있던 날 이기도 했다. 그리고 10월 24일은 맥아더 라인(선천-거인-평양-풍산-성진선)이 철폐된 날이었다.

10월 25일 중공군 제2군이 한국군 2군단의 제6사단을 공격했을 때는 이미 적의 일부 병력은 청천강 북쪽의 운산과 온정리까지 진출, 국군 제6사단과 제1사단의 진로를 차단했고, 정유령산맥을 넘어 초산(楚山)을 향하던 국군 6사단의 제7연대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그 당시 한번도 중공군과 조우한 적이 없었던 한국군은 뺨가리를 치며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오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UN군 사령부는 그때만 하여도 “한만국경에 배치되어있는 중공군 경비대가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오판, 미 제1기병 사단을 급히 운산 지구로 이동시켜 국군 제1사단을 초월하여 공격하게 하는 한편 미 제1군단으로 하여금 신의주(新義州)-수풍(水豊)간의



▲ 1950년 10월 25일 - 11월 5일 전개된 일차공세군은 제38군, 39군 그리고 40군이 일차공세를 해왔고 각 군은 3만명의 병력으로 되어있었다. 거의 보병으로 짜여져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군으로 총기 다루는 기술과 군수철 등 베테랑급이었다.

국경선을 목표로 진격을 계속시켰다. 그리고 동부의 제1군단과 미 제10군단은 중공군과의 접전이 없는 가운데 국경선을 향한 진격을 계속시켰다.¹³ 그러나 미 제1기병사단이 국군 제1사단을 초월하는 작전이 실패함으로써 운산 온정리 일대에서 작전 중이던 UN군과 국군마저 철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 제8군은 중공군의 돌연한 출현으로 전선의 균형이 일시에 무너졌고, 정거동으로 진출한 부대의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직면하자 11월 1일을 기하여 이 부대들을 약 90Km 후퇴시켜 청천강 남안에 방어선을 형성하고 전세 만회를 위한 작전준비에 착수토록 하였다.

그러나 청천강 연변까지 남하한 중공군은 11월 5일-11월 7일경 산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동부전선에서는 국군 제3사단 제26

13 實錄: 6.25전쟁과 육군종합학교, P.232



▲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의 승리 환호.

연대가 수동의 작은 계곡에서 중공군과 작전을 치른 뒤에 후퇴하였다. 그 얼마 뒤에 국군 제1군단과 미 제10군단은 장진호(長津湖)–풍산(豊山)–성진선(城津線)에서 일단 진격을 멈추고 다음 명령을 기다리던 중 중공군의 전차(戰車)가 출현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중공군의 제1차 동계 공세에서의 중요한 전투는 국군 제6사단 제2 및 19연대와 국군 제7사단 제10연대의 온정리 전투(10월 25–28일),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에 의한 운산 전투(10월 25일–28일), 영 연방군의 군우리(軍遇里) 동측방의 비호산(飛虎山) 전투(11월 2일–4일), 동부 미 제10군단의 미 제7사단 예하 20 및 17연대의 혜산진(蕙山鎭) 탈환 전투(11월 21일) 등이다.

b) 중공군 제2차 공격의 충격

11월 25일 서부전선에서 중공군 제13군 그룹은 한국 제2군단을 청천강 전투에서 괴멸시키고 그 우측의 미 제2 보병사단까지 격퇴시켰다. 이로써 미 육군의 전사상 가장 긴 후퇴가 시작 되었는데, 이를 가능케 한 것은 터키 여단의 후미보호 전투로, 아주 용감하고 희생적인 혈투로써 이틀간(11월 27일–29일) 적의 진격을 저지시킨 것이 이 긴 후퇴를 가능하게 하였다.



▲ 흥남부두로 몰리는 피란민들 (1950. 12. 19)

***장진호의 포위망 탈출:

동부전선에서는 11월 27일 미 제7 보병사단 예하의 연대병력(3,000명)과 미 제1해병사단(12,000-15,000명)이 중공군 제9군 그룹에 의한 3일간의 포위공격으로 장진호에서 15,000명의 전사자를 남기고 Chosin Few(長津湖)를 빠져나왔다. 이 장진호 전투를 Chosin Few라고 부르며 미국 전사 역사상 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전투로 기록돼있다. Chosin Few는 일본인들이 장진(長津)을 일본 발음으로 ‘쵸신’(Chosin)으로 발음하여 지도상에 ‘쵸신’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이며 Few는 영어의 ‘적다’는 뜻으로 장진호 포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 안된다는 뜻으로 Chosin Few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로써 미 해병 1사단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잔존 병력은 간신히 흥남으로 빠져나와 선박을 타고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그리하여 11월 30일까지 중공군 제13군 그룹은 미 제8군을 축출, 12월 중순에는 38선 이남까지 후퇴시켰다. 한편 동북전선에서는 12월 11일까지 미 10군단이



▲ 철수하는 유엔군 수송선에 오르기 위해 흥남 부두로 몰려든 피란민들 (1950. 12. 19)

중공군 9군 그룹의 진격을 저지하면서 흥남 방위교도부 설치에 성공, 그 유명한 흥남 철수작전이 시작되었다.

[흥남 철수 작전]

미 제9군단, 제10군단의 병력이 함흥을 거쳐 흥남으로 집결, 선박으로 남쪽으로 철수하게 되는데 이 철수작전에서 105,000명의 병사와 98,000명의 일반 피난민과 17,500대의 차량, 350,000톤의 군수품을 193척의 선박으로 부산으로 철수시켰다. 이때 북에서 후퇴해 내려온 한국군은 흥남 부두의 혼란과 또 피난민들의 철수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기 위하여 김백일(金白一) 장군이 한국군 전군에게 도보로 남하하도록 명



▲ 메리디스 빅토리호 선상의 탈북피난민들

령, 이로 인하여 흥남에서 많은 민간인 피난민들이 배를 탈 수 있어 보다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 철수작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마지막에 떠난 메리디스 빅토리호(S S Meredith Victory)의 영웅적인 피난민 수송이다. 메리디스 빅토리호는 1945년에 건조된 7,600톤의 화물선이며 정원은 60명으로서 선원 47명에 13명의 승객이 더 탈 수 있는 배였다. 그러나 당시 흥남부두에는 아직 철수를 다 못한 군인들과 군사물자와 차량 등으로 붐비고 있는 가운데 북에서 함흥을 통하여 밀려내려온 피난민들로 부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혼잡 하였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남은 배는 메리디스 빅토리호 밖에 없는데 군인과 군사물자를 실으면 민간인을 한 사람도 더 태울 수 없었다. 그러나 부두에 운집한 피난민들이 울부짖고 애걸하는 모습은 차마 그대로 적중예 버리고 가기에 너무나 참혹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군인을 먼저 구출해야하는 10군단장 아몬드 중장의 입장에서는 이 피난민들을 그대로 버리고 가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그때 10군단의 아몬드 장군(Lt. Gen. Edward M. Almond)의 민사고문이었던 의사 현봉학(玄鳳鶴 博士)씨가 아몬드 장군에게 “우리의 군사목적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것인데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로 가겠다는 이 피난민들을 우리가 어찌 적에게 넘겨주고 갈 수 있겠느냐”며 피난민들을 같이 태워주기를 애원하였다.

또 한편으로 한국군 수도사단의 민사참모(G-5) 유원식 대령(柳原植 大領) 또한 아몬드와 그의 참모들에게 부두에 운집해있는 피난민들을 어떻게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애걸복걸하여 결국 실었던 모든 군사물자를 다시 내리고 피난민들을 태우기로 했다. 그러나 7,600톤의 화물선에 그 많은 피난민을 다 태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선장 레너드 P. 라루¹⁴ (Leonard P. LaRue 1914-2001)는 배가 가다 침몰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태우기로 결심, 피난민들에게 짐을 다 버리도록 지시하고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워 28시간을 천천히 항해해 24일 부산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하지만 부산항은 이미 피난민들로 가득 찼다는 이유로 입항을 거절해 하는 수 없이 50마일을 더 항해해서 크리스마스인 25일 거제도의 장승포 항에 입항하였다.

이 배는 미 의회에서 갤란트상(Gallant Award)을 받은 몇 안되는 배 중의 하나이며 또 기네스북에 역사상 작은 배로서 가장 많은 사람을 태운 배로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 미국 롱비치(Long Beach) 항에 그와 똑같은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월래의 메리디스 빅토리호는 아쉽게도 1993년 고철로 분해돼 중국에 팔렸으며 일등항해사였던 로버트 래니씨는 수년전에 LA 한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6.25 기념일에 나와 인사했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12월 23일(1950) 후퇴작전을 지휘하던 미8군 사령관 워커 장군(General Walton Walker)이 차 전복으로 사망, 전군의 사기

14 레오나드 P. 라루(Leonard P. LaRue) 선장은 필라델피아에서 출생, 바다에서 22년간을 보냈으며 1954년에 은퇴 뉴저지주 뉴턴시에 있는 베네딕토회의 성 바오로 수도원(St. Paul's Abbey in Newton)에 들어가 '마리나스'(Marinius)라는 이름의 수사로 2001년 10월 87세로 숨질때 까지 평생을 봉헌했다. 당시 1등 항해사였던 로버트 러나씨와 한국의 인재철씨가 메리디스 빅토리호를 "세계에서 작은 배에 가장 많은 사람을 실은 배로" 기네스북에 올렸다.



▲ 전선을 시찰하는 중공군사령관 평더화이.

가 땅에 떨어지게 됐다. 12월 26일 워커 장군 후임으로 도착한 리지웨이 중장 (General Matthew Ridgway)은 전군의 사기 진작과 군의 재정비가 가장 시급한 것을 느꼈다.

c) 중공군 제3차 공세

1950년의 마지막인 날(12월 31일)에 절대 다수병력의 중공군이 핑가리, 피리 등을 불며 물결처럼 몰려오는 인해전술로 전 UN군이 붕괴상태에 빠져 1951년 1월 4일에는 또 다시 서울이 적의 손에 함락되었고 전군이 38선 이남까지 후퇴하게 되었다. 이것이 중공군의 제3차 공세였다.

중공군 제3차 공세에 완전히 밀리게 되자 맥아더 장군은 미국의 핵 폭탄을 적의 심장부에 투하, 그 방사선으로 인해 적이 더 이상 중공군의 군수품 수송과 병력 이동을 못하도록 하는 작전을 고려하였으나 그것은 제3차 세계대전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하여 허용되지 않았다. *** (소련은 1949년에 핵 폭탄실험을 했으며 미국은 1950년 소련이 상당한 원폭을 가진 것으로 오판하였다)

한편 신임 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우선 전군의 사기진양에 전력을



▲ 금화지구 전투에서 미군 전차를 기습 공격하는 중공군.

다하면서 수원과 원주, 삼척까지 후퇴했던 병력을 다시 재정비, 적의 연장된 긴 보급로를 폭격하여 적의 식량수송을 비롯하여 탄약 등 가장 급한 군수품의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적이 서울 이북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어 다시 서울 부근의 원주까지 진격하였다.

d) 중공군 제4차 공세

2월(51년) 중순경 중공군의 반격은 홍천(洪川) 탈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미 보병 2사단 제3연대와 불란서 대대병력 및 한국군 일부를 포함한 총 5,600명의 병력으로 중공군의 포위군 25,000명을 격퇴시킴으로써 함흥 후퇴 이후 처음으로 설욕전에서 명예를 회복하였다. 실로 1대 5의 병력으로 싸워 이긴 “한국전의 게티스버그 전투” (Gettysburg Battle of Korean War)였다. 이 전투에서 완전히 사기충천한 미8군은 전 전선에 걸쳐 월등히 우월한 화력으로 적 병력의 살상에 집중, 여세를 몰아 3월 7일 다시 서울을 탈환하였다. 이것이 4번째의 수도 탈환이며 이때는 150만이던 서울 인구가 20만명으로 줄어있었다.

이 무렵 중공 모택동 주석은 3월 1일자로 소련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에

서 중공군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공군력의 절대 부족으로 보급로 엄호를 할 수 없어 병기와 식량 부족으로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하기 힘들니 기필코 공군력 증강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스탈린은 2개 비행사단과 3개 대공사단 그리고 600대의 차량을 공급하기로 동의하였다.

4월말경에 중공군 총사령관 팡득회가 자기 부사령관을 주은래 수상에 보내 중공군의 위협은 적보다도 “먹을 것이 전혀 없고, 실탄이 바닥을 치고 있으며 수송 차량이 없어 부상자를 후송할 길이 없다”고 보고함으로써 그의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은 완전히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열세의 공군력을 보강하기위하여 1951년 9월부터 중공 공군이 한국전에 참여키로 하였다.

한편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을 4월 11일자로 해임시켰으며 같은 날짜로 한국전에서 패배일로의 유엔군을 재정비, 신속하게 적의 공격을 차단한 리지웨이 장군(General Mathew B. Ridgway)을 그 후임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미 8군 사령관으로는 밴 플리트장군 (General James Van Fleet)이 임명되었다.

참고로 맥아더 장군의 해임 이유들은: 1) 38선을 넘어 진격해도 중공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여 많은 군의 사상자를 낸 것, 2) 원자탄 사용이 자기 권한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 3) 맥아더는 군사적 완전 승리만이 유일한 명예스러운 결과라고 믿는 반면 트루먼 대통령은 아시아의 지상전에서 완전승리는 힘들다는 비관론과 따라서 적당한 기회에 휴전하여 유엔군의 철수로 끝내는 것이 이롭다는 생각의 차이, 또한 1950년 당시 소련의 공산세력이 동구권을 위시하여 전 유럽으로 번져나감으로써 1949년 설립한 NATO군의 보강이 절실히 필요해짐에 따라 더 이상 한국전에 미 지상군을 묶어둘 수 없었던 것, 4) 군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의 명령 불복종과 또한 전시 중 최고 사령관으로서 전쟁터인 한국에 한번도 숙박하지 않고 안전한 일본에서만 작전을 지휘했다는 것 등등이다.¹⁵

15 Stokesbury(1990), pp. 123-127; Stein (1994), p. 69; Halberstam(2007), p. 600; Stein (1994), p. 79; Halberstam (2007), P. 498.



▲ 제 5차 공세때 공격하는 중공군.

맥아더 해임 직후 벤 플리트 장군 취임 후에도 적의 공세는 계속되었지만 늘 UN군에 의해 격퇴되었으며 공군과의 합동작전에서 개성과 서울 사이에 중공군을 가두어 적을 섬멸하면서 북상, 지금의 휴전선인 38선 이북의 소위 캔사스 전선(Kansas Line)까지 도달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4월 중순경 전선을 정비한 후 5월에 접어들면서 또 다시 총공세를 시작하였으니 이를 제5차 춘계공세라고 부른다.

e) 중공군 제5차 춘계공세와 좌절

중공군은 4월에 이르자 3개 야전군 총 270,000명의 병력을 동원해 미 제1군을 임진강과 가평에서 공격하기 시작했고, 5월에는 UN군이 점유한 캔사스 선을 공격 점령했다. 그러나 5월말에 다시 UN군이 반격하여 캔사스 선을 확보함으로써 전선은 교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의 전투에서는 점령지역의 변화는 별로 없이 대체로 대대병력 정도의 조우전이 전개되었고, 주로 38선 이북에 대한 폭격만 강화되어 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교착상태는 결국 공산군이 한반도 전체를 완전 적화한다는 꿈을 버리게 했고, 또한 UN이 바라는 남북간의 평화적인 통

일의 길은 멀어만 가는 것 같았다.

이러한 가운데 1951년 6월 23일 소련 주 유엔대사 제이콥 말리크(Jacob Malik) 외무차관은 UN방송국 ‘평화의 대가’ 시간을 이용, 휴전협상을 암시했고 미국 또한 한국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유 우방국가들을 대표하여 마침내 소련의 협상제의를 받아들였다.¹⁶

미국이 소련의 협상제의를 받아들인 이면에는 여러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한반도의 지형상 군사적으로 완전승리를 거두려면 더 많은 병력 증강이 필요한데, 당시 2차대전의 후유증으로 전세계가 경제적으로 피폐한 점을 틈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세력이 동구유럽을 위시하여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어가던 시기인지라 특히 유럽을 중시하는 미국으로서는 더 많은 병력을 극동에 묶어둘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또한 참전한 자유민주국가들이 한국에 더 병력을 증파해주는 것도 어려운 문제였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려면 한반도에서 중국의 세력을 일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국경을 넘어 중국 본토의 심

장부를 폭격해 대타격을 가해야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는 소련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잘못하면 또 다시 세계대전으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의 희생과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북진하는 것이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 현 전선에서 더 이상 공산세력이 남하하지 않도록 견고한 방위태세로 전환한 것이다.



▲ 중공군 포로들이 쉬고 있는 모습.

16 US Army in Korean War Written by Dr. Walter G. Hermes (1992), P. 15.



▲ 1953년 춘계공세를 준비하는 중공군.

따라서 중공의 제5차 춘계공세를 격파한 시점에서 북진보다는 방위태세로서 앞으로의 남침을 막는데 가장 유리한 지형 지점을 점유하는 일에 주력함으로써 상호간 치열한 국지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것은 휴전 회담 중에도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는 전투행위가 계속된다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정세로서는 남북통일은 무력에 의한 방법 외에는 판 방법이 없다고 판단, 이왕 공산측이 남한을 침공한 이 기회에 어떻게든 북진하여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면 또 다시 새삼 피를 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북진하여 통일을 이룩해야겠다고 결정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정일권(丁一權) 장군에게 한국군 만이라도 북진하도록 지시하였지만 모든 군사 지휘권이 미 8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에 속한 탓에 우리 국군만으로는 행동은 불가능 하였다. 또한 단독 진격한다 해도 미국의 군사적 지원 없이는 전혀 승산이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절대 휴전반대운동은 일방적인 반공포로석방(1953년 6월) 등으로 사사건건 미국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미국정부로서

는 이 대통령을 미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의 하나로 여겨 한때는 이 대통령의 축출까지도 고려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이 박사의 격렬한 휴전반대는 휴전 후 미국과의 한미동맹 체결, 한국 재건을 위한 막대한 경제원조를 받아내는데 절대적인 무기가 되었다.